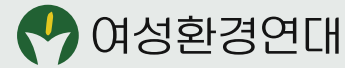




2022

임팩트 리포트

# 여성환경연대



## 여성환경연대 임팩트 리포트

###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여성환경운동 단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사회를 지향하며, 작고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녹색의 대안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낭비로 인해 우리 삶의 터전인 숲, 물, 땅, 공기가 오염되어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생활 주변에 스며 있는 각종 화학물질과 오염물질로 인간은 물론 지구상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유전공학은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전쟁, 핵무기의 공포, 조직 폭력, 성 폭력, 학원 폭력 등 폭력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을 휩쓸고 있으며, 이들의 모습을 팔아 이익을 얻는 상업문화가 더욱 기승을 부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따뜻하게 지키고 키워가려는 노력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것이 인간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물신 숭배의 문화가 빚은 결과라고 봅니다. 여성이 여성 속에서 현재의 생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고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들고 죽어 가는 지구, 그 위에서 똑같이 병들고 죽어 가는 생명을 치유하며, 그 생명력이 크게 신장되고 지구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있는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속이면서 자연이 나누어준 자산을 독점하는 환경문제의 뿌리를 똑바로 보고 이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과 얽혀 있는 우리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어가려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회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힘을 합치는 세상,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대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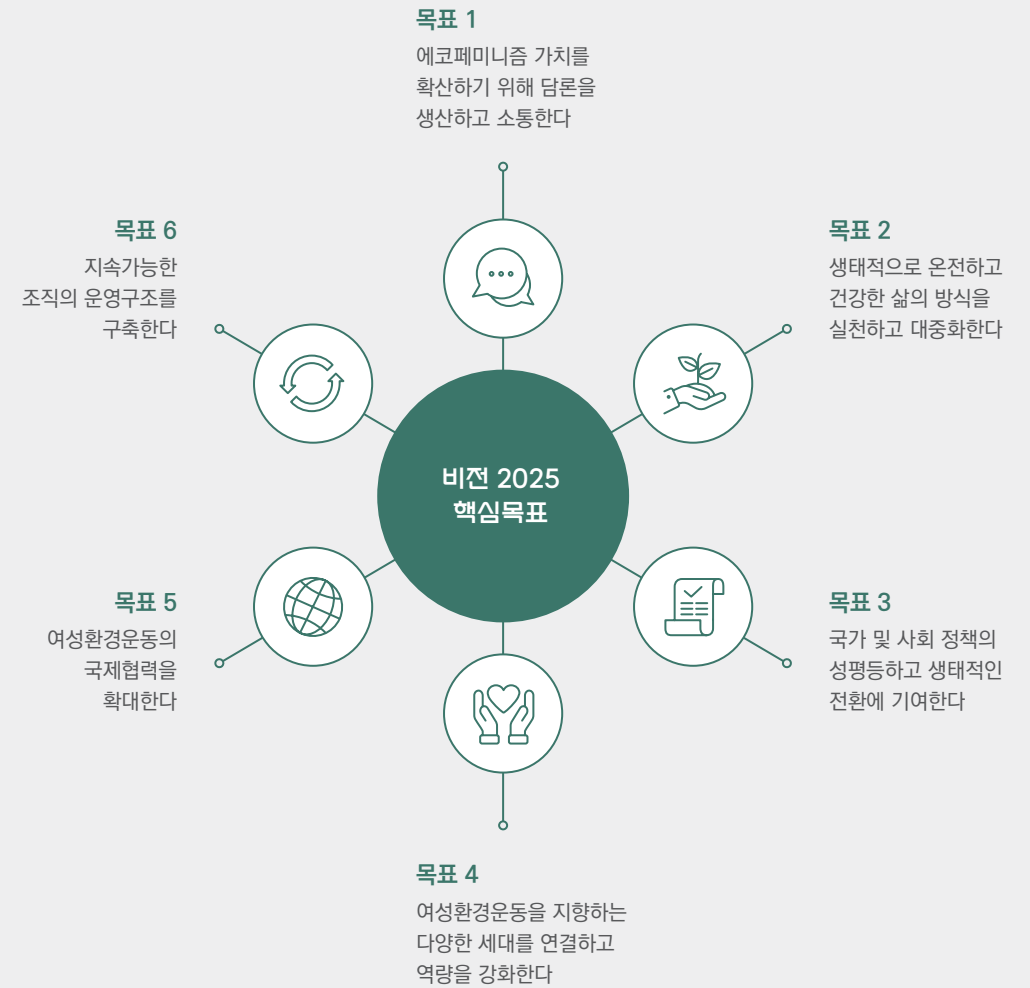
\* 여성환경연대 창립선언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미션

여성이 주체가 되어 생태적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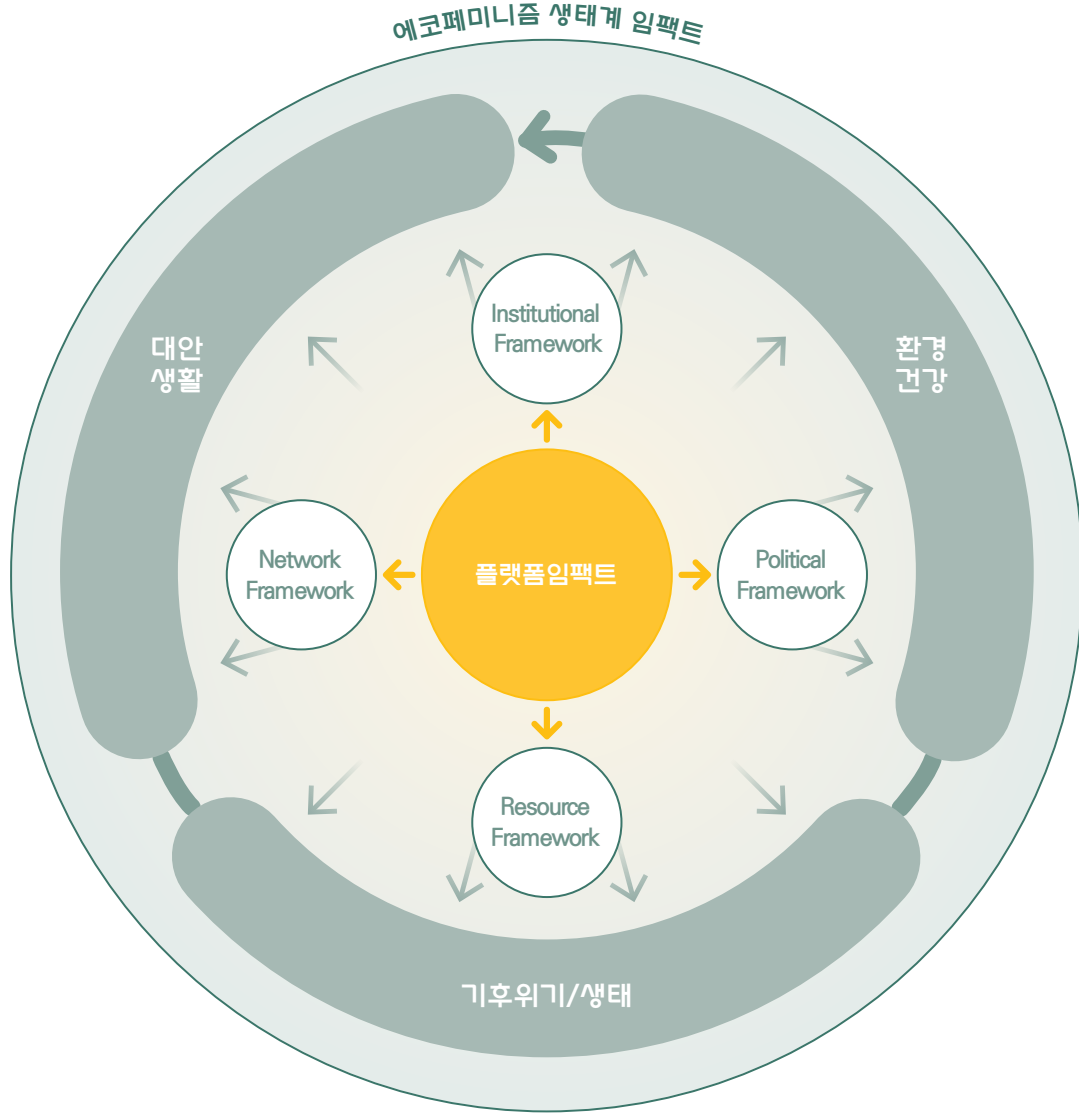
### 비전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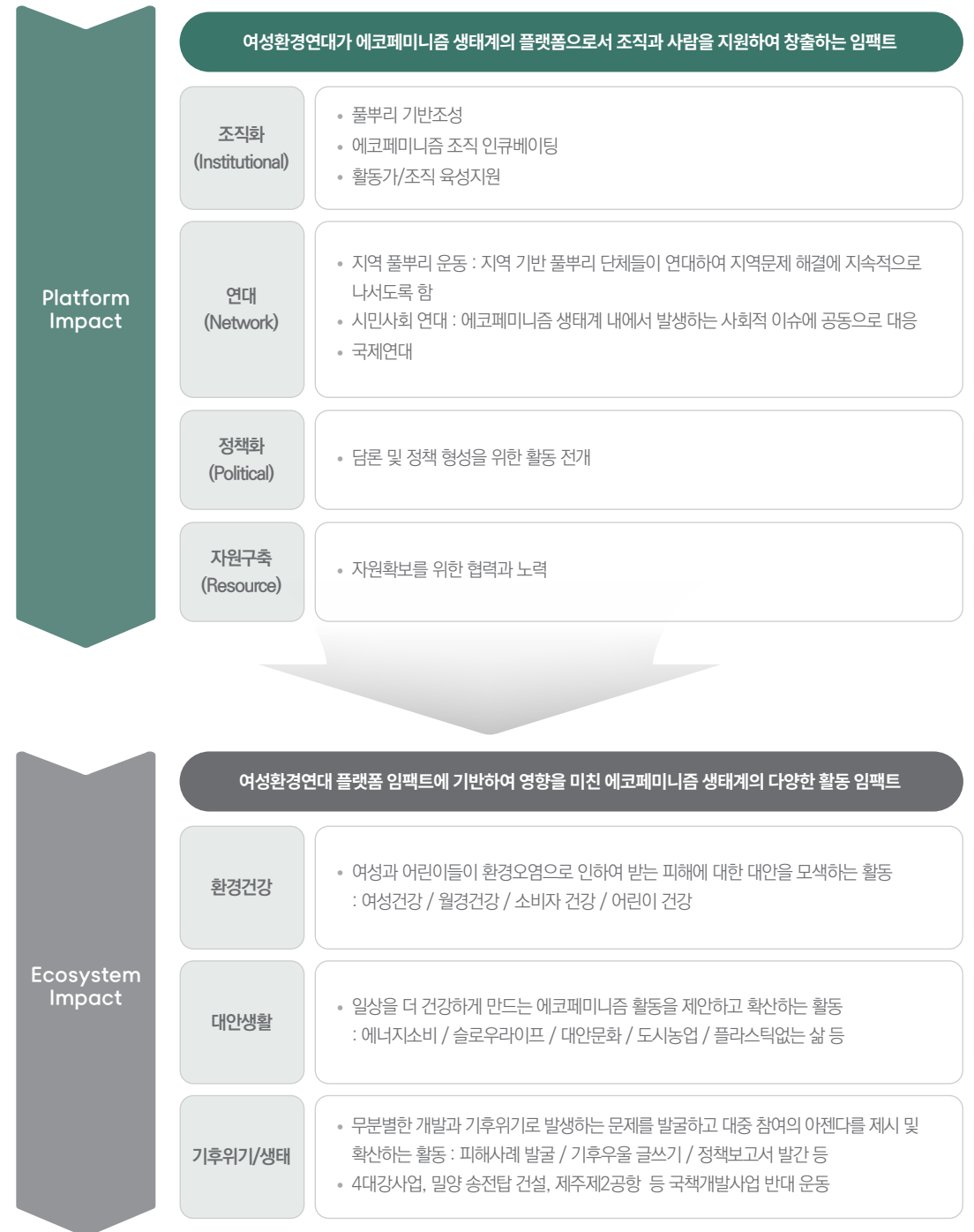


여성환경연대의 임팩트 정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으로서 에코페미니즘 생태계 구성에 기여함



여성환경연대 임팩트 프레임워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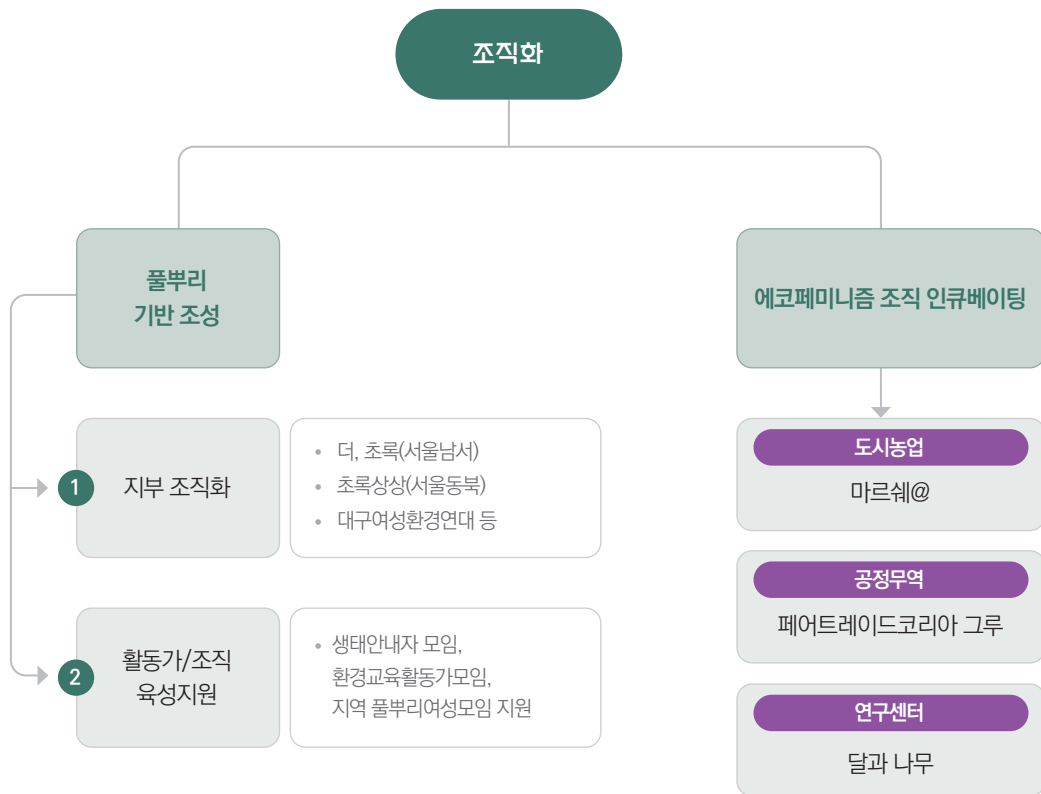


### 플랫폼 임팩트 1. Institutional Framework (조직화)

#### Institutional Framework 주요성과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여성과 환경분과’를 조직하여 참여하는 것에 이어 다양한 여성환경운동가들을 만나며 여성환경연대의 창립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이 창립된 1999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여성환경연대는 특정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펼치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을 찾아 모으고 연결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정기 월례포럼과 여성활동가 전국연수를 개최하며 활발하게 한국사회의 여성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고 연결하며 에코페미니즘 생태계를 구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연결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 활동 의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에코페미니스트를 양성하고자 했으며, 특히 풀뿌리여성활동가의 세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시 주요 사회적 움직임이었던 건강의제, 생협운동, 지방의제21과 연계하여 젠더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지역 풀뿌리 기반 조성

창립 초기 여성환경연대는 생협과 지역 풀뿌리 시민조직, 기존 환경 단체와의 인적교류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여성민우회, 과천녹색가게, 생협, 마포두레생협, 한살림(도봉, 강동, 중랑) 등 지역 기반 조직과의 활발한 접촉을 이어간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서울 일부 지역과 대구, 대전, 영남 지역의 여성활동가들을 모아 지역단위의 여성환경포럼을 구성하여 지역 기반의 여성환경운동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이들 지역에서 여성환경연대 지부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이 지역에 기반할 수 있도록 지부로 조직화했다는 것, 여성환경연대의 정신과 운동을 풀뿌리 지역에서 실행하는 동시에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이 시기 여성환경연대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2007년에는 서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2011년에는 서울 남서여성환경연대 '더, 초록'이 창립되어 여성환경연대의 지부 조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역 풀뿌리 조직 기반 수립에서 대중중심의 운동으로 조직의 전략적 무게 중심은 옮겨졌지만 두 지부는 현재까지 지역 중심의 지부로서 에코페미니즘의 지역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레생협, 한살림(도봉, 강동, 중랑) 등 지역 기반 조직과의 접촉 또한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여성환경연대는 에코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늘리기 위해 2002년부터 여성생태안내자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시민참여자의 유입을 견인하였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을 적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민을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사업으로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생협 등 관련 단체 내 자원활동가가 양성되었고 특히, 구로구의 경우 이후 남서지역 여성환경연대 지부로 발전하는 새로운 풀뿌리 조직 설립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양성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강사가 수십 명에 이르는 등 활동가 양성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에코페미니즘 조직 인큐베이팅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에코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새로운 조직을 인큐베이팅 한 사례 역시 여성환경연대의 중요한 조직화 성과입니다.

대안생활 운동의 핵심 주제였던 도시농업과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여성환경연대는 두 조직을 인큐베이팅 하게 됩니다. 바로 도시농업을 지향하는 농부시장 마르쉐@과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입니다.

에코페미니즘 담론 개발과 대중적 확산을 위해 부설기관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를 창립하였습니다.



#### 도시농업 농부시장 마르쉐@

마르쉐@은 '장터, 시장'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마르쉐@(marché)에 장소 앞에 붙는 전치사 at(@)을 더해 지은 이름으로, 어디에서든 열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2012년 10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첫 장을 연 마르쉐@은 '돈과 물건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시장' 대신 '사람, 관계, 대화가 있는 시장'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작은 시장을 통해 이야기 나눔으로써 조금 더 즐거운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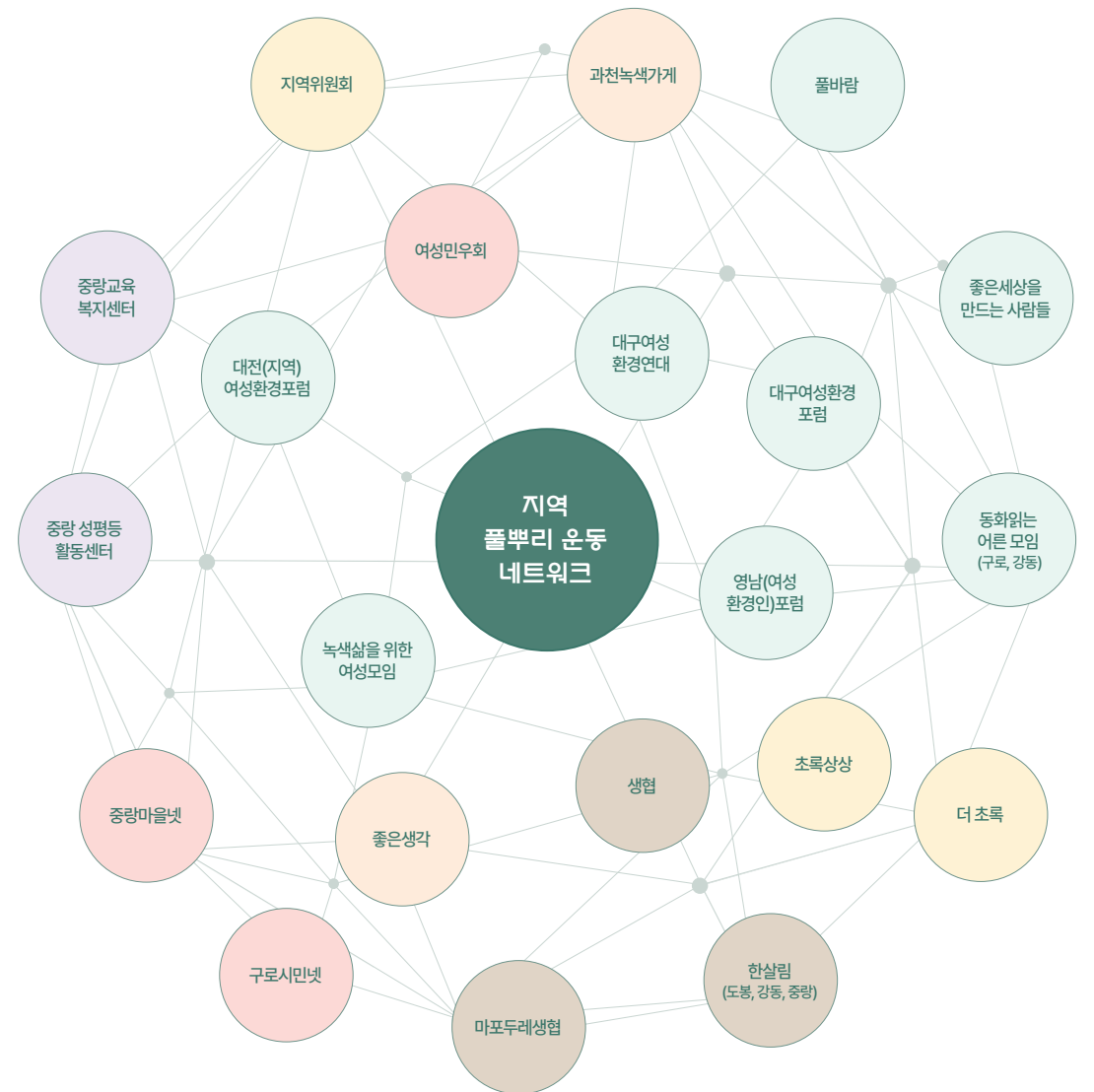
여성 생산자들의 손끝에서 우리의 손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꿈꿉니다. 20년간 시민단체,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며 지구적 빈곤과 지속 가능한 대안적 발전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3년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민 주식회사'이며, 사회적 기업입니다. 생산자 여성들이 적은 자본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수공예 의류, 리빙소품, 식품, 화장품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그 가족,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합니다.

### 플랫폼 임팩트 2. Network Framework (연대)

#### 지역 풀뿌리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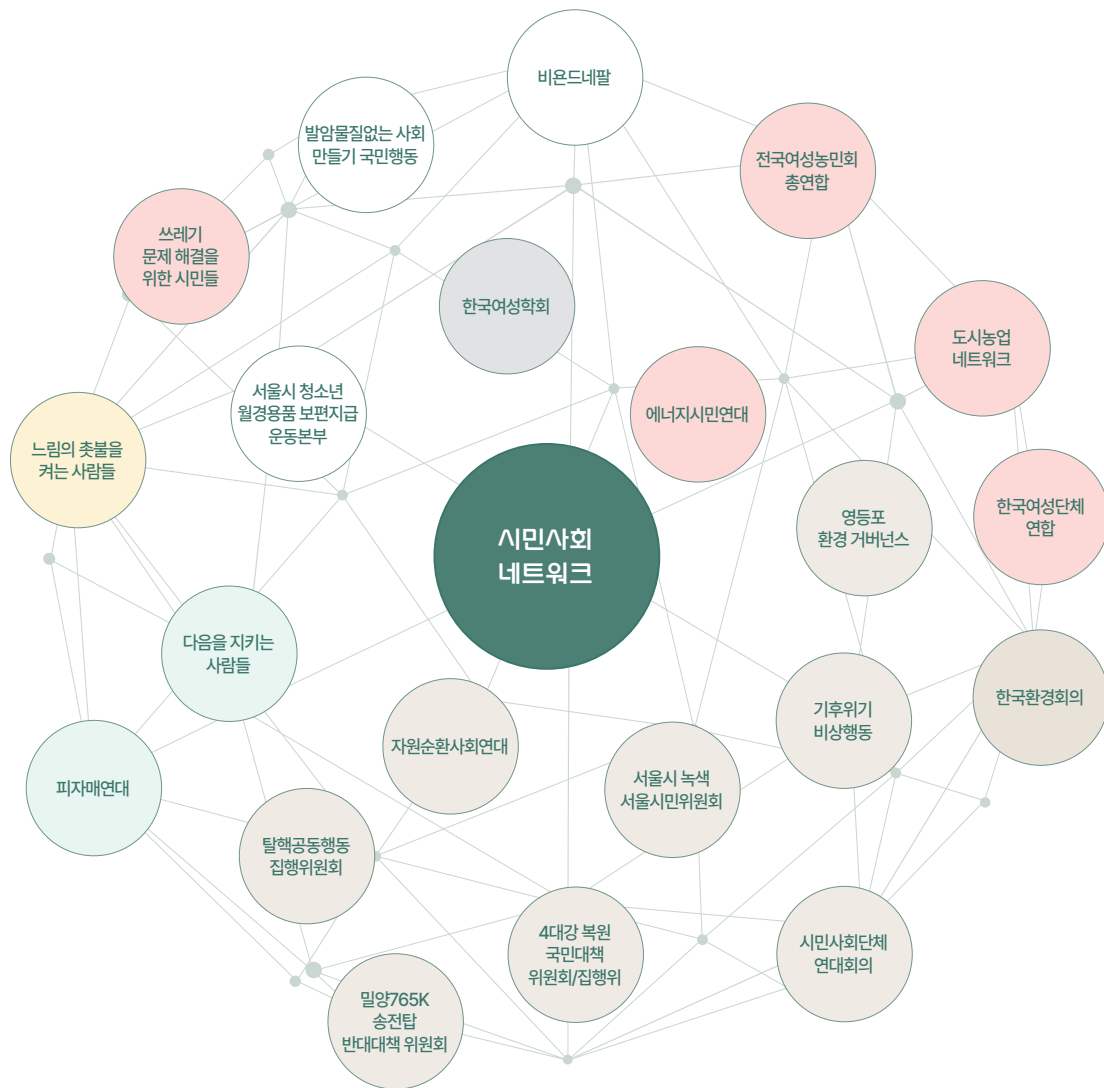
여성환경연대는 지역 기반 풀뿌리 단체들이 연대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나서도록 풀뿌리운동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 대구, 영남, 대전 등의 풀뿌리 지역조직과도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제주선언문(2000)의 첫번째 과제가 "풀뿌리 여성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연대를 강화한다"로 제시되는 만큼 여성환경연대는 그동안 지역에서의 여성운동 발굴과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집중해왔습니다.



### 시민사회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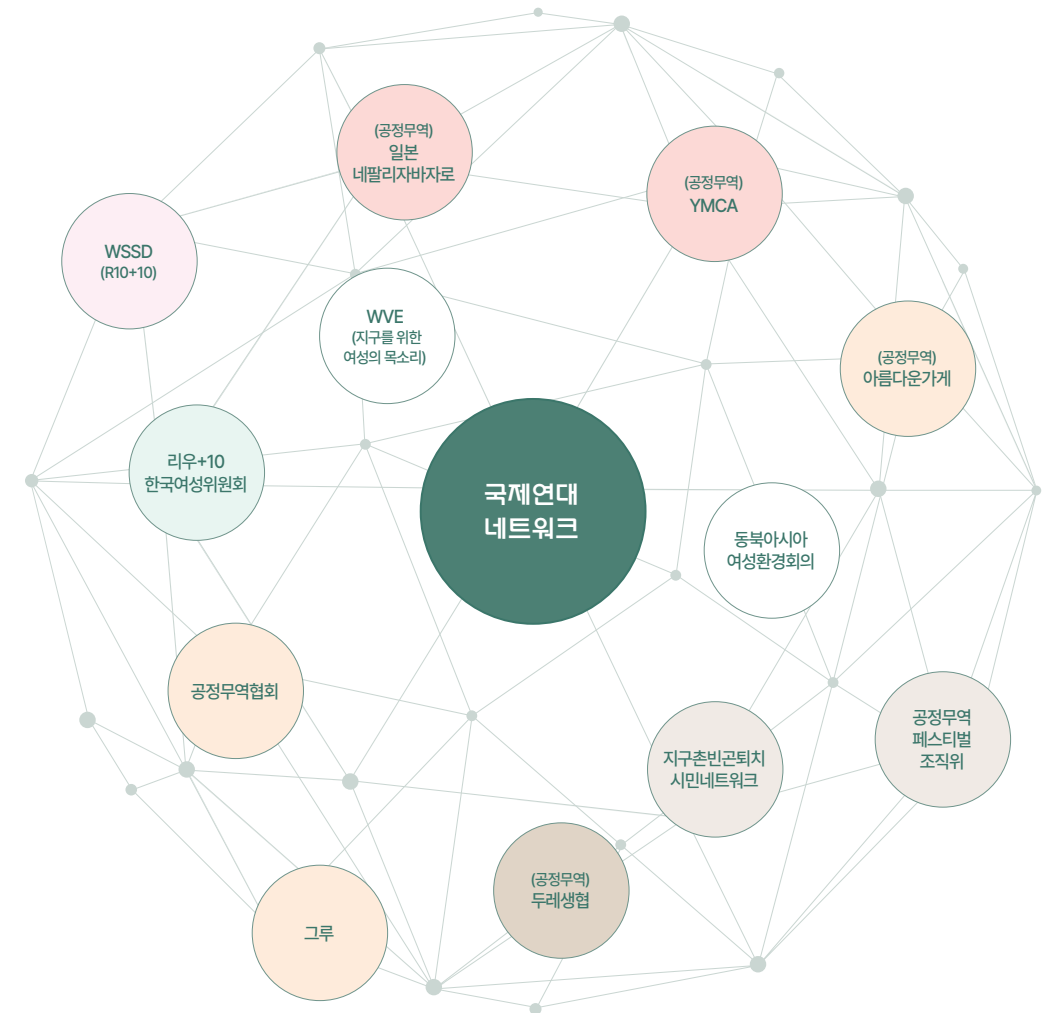
여성환경연대는 에코페미니즘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펼쳤습니다. 특히 세월호, 밀양송전탑, 기후위기 등 국가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연대체에 참여하며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환경연대는 생명과 안전, 돌봄과 살림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세월호 집담회(2014), 여성주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럼(탈핵, 에너지)(2013)등 에코페미니즘과 사회 이슈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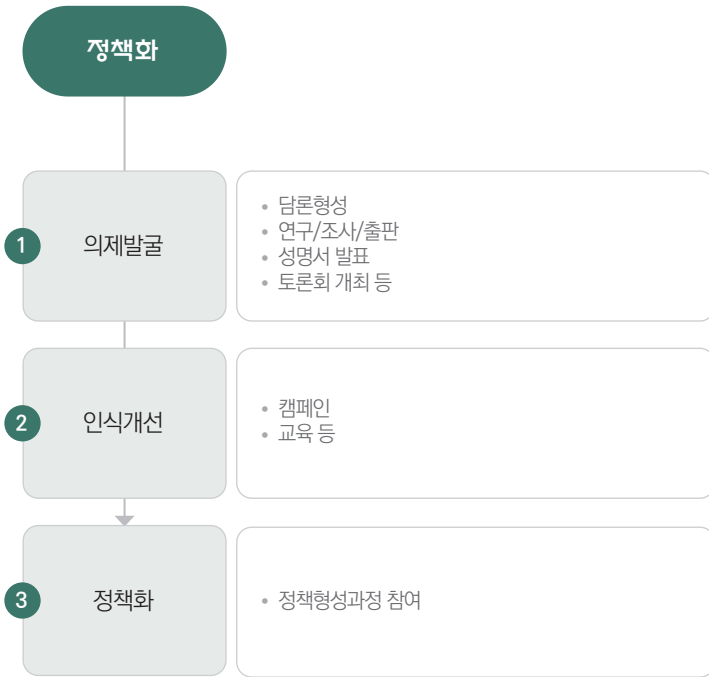
### 국제연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와의 연결도 여성환경연대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조직의 시작이 세계여성대회였던 것만큼, 국제사회에서 여성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한국사회에서 여성환경운동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SCAP NGO 심포지엄 및 아시아 여성환경회의에 참석하고, 리우+10준비를 위한 한국여성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에코페미니스트를 잇는 동북아시아여성환경회의를 기획, 주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보편적인 방향에서의 에코페미니즘과 그에 대한 국제적인 담론에 함께 참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무역을 주요 의제로 한 국제연대 활동도 펼쳤습니다. 2006년에 아시아 공정무역 여성포럼을 개최하였고,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의 여성과도 연대하고자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네팔 공정무역 생산지역 현지 방문이 있었고, 희망무역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공정무역의 날(World Fair Trade Day) 희망무역 페스티벌에 꾸준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1년에는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생리대를 전달하는 <나는 달 프로젝트>를 전개 하였습니다.



플랫폼 임팩트 3.  
Political Framework  
(정책화)



의제발굴 (담론 형성, 연구, 성명서, 토론회 개최 등)

여성환경연대는 2003년부터 주제포럼, 월례포럼 등을 통해 여성정치, 여성농민, 생명사상 등 다양한 에코페미니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4년부터 에코페미니즘 담론을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시작된 에코페미니즘 학교는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전환적 상상력과 통찰력 그리고 운동방향을 집단생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강의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에코페미니즘 학교는 적극적으로 담론과 연구자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에 기초해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를 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그룹도 만들어졌습니다. 에코페미니즘 담론형성을 위한 전문 연구모임인 <달과나무포럼>도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연구모임은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 이후 2020년 여성환경연대의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로 독립하면서 담론 개발과 형성을 보다 상시적인 형태로 전면화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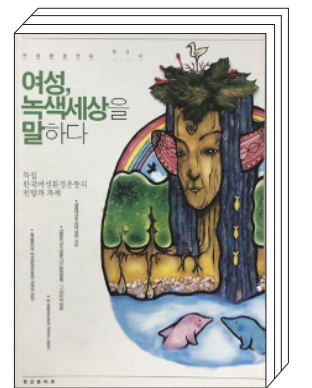
달과나무포럼에서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를 제안하여 2016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 다른 형태로 에코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컨퍼런스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론 형성을 위한 도서 출간 및 북콘서트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에코페미니스트 10인 인터뷰집>, <외모왜워>, <괜찮지 않은 세상,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세상도 바뀌겠지> 등의 대중서를 발간하고 북콘서트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주요 출판물



2001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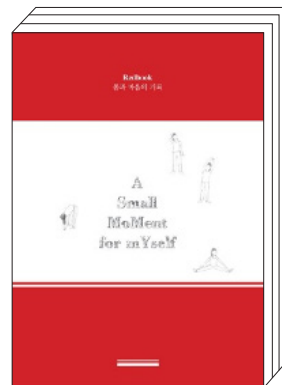
2004  
여성, 녹색세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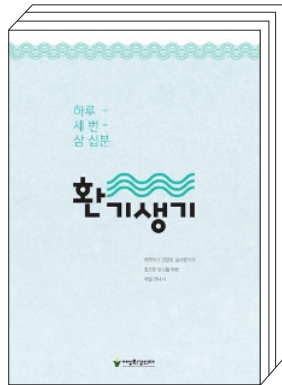
2006  
뚝딱쿵 생태미술 공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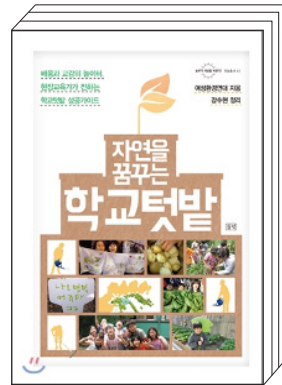
2010  
핸드메이드 생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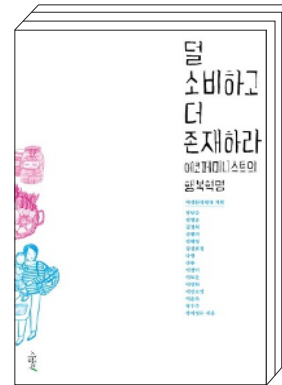
2013  
몸과 마음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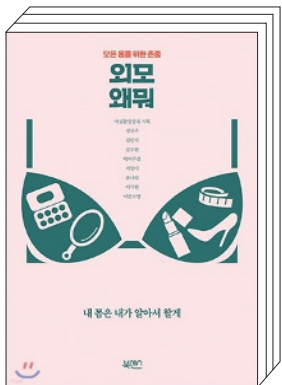
2014  
환기생기



2014  
자연을 꿈꾸는 학교텃밭



2016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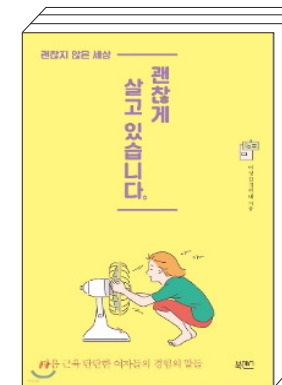
2018  
외모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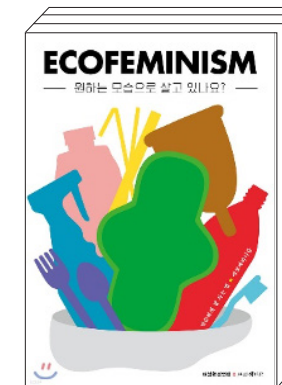
2018  
어떤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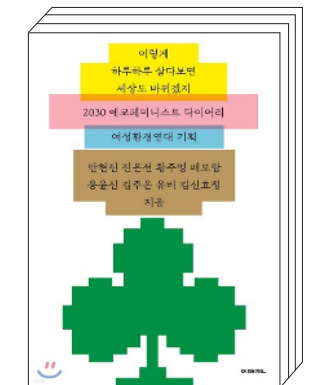
2018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2019  
괜찮지 않은 세상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2019  
에코페미니즘,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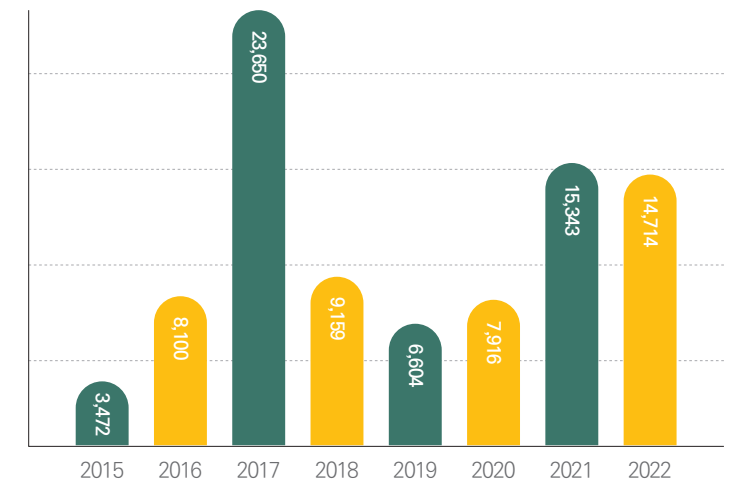


2020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보면  
세상도 바뀌겠지

인식개선 (캠페인)

시민 참여 캠페인 방식에 있어서도 새롭고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습니다. 기존 서명운동, 기자회견, 강연 등 일회적인 캠페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에코페미니즘 시각에서 다양한 삶의 주제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모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거나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액션을 제안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캠페인 형태를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월경말하기, 편지 구독, 릴레이 인터뷰 등 시민이 행동과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험과 지향을 발화하고 공감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도부터, 방방곡곡 플라스틱 없는 카페 지도 제작과 같이 집단지성과 참여에 기반한 캠페인,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보다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팟캐스트, SNS참여 온라인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도입하여 적용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활동의  
시민 참여자수  
(명)





정책화를 위한 주요 활동



2022

-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그 이후를 제안하다 국회 토론회
-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촉구 기자회견, 식약처와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공개에 대한 성명서 발표
-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촉구 서명운동
- 기후위기 피해사례 실태조사 설문조사
-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월경정책 모니터링
-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촉구, '새 정부에 요구한다' 기자회견
- 전국 신공항반대 1만인 서명결과 발표 및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 2022 대선정책과제 요구안 배포
- 연구센터 '기후위기를 위한 페미니스트 정책 수립하기' 보고서 발간

2020

- 21대 총선 주요 정당 월경권 공약 모니터링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국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2021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편성 촉구 현수막 게시 액션
-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월경정책 토론회
-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조례 시행 촉구 성명서 발표
- 여성X기후위기 정책 간담회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 서울시장 보궐선거 월경 정책 질의

2019

- 국회 토론회 "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 일회용컵보증금제 요구 기자회견

2018

- 서울환경교육한마당: 플라스틱없다방 부스 운영
- '생리대 논란, 안전대책 강화 촉구' 기자회견

2017

-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 생리대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 생리대 국정감사 기자회견... '국회는 생리대안전 위한 책임있는 국감 시행하라'
- 식약처 <국내 '생리컵' 등 생리용품의사용현황 등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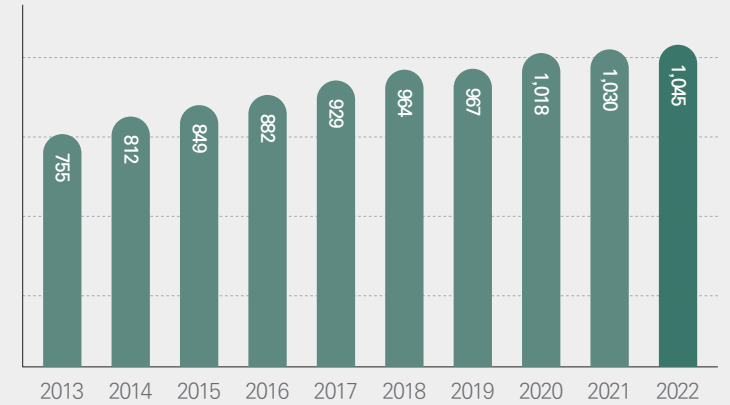
2016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 일본산 식품 방사능오염 식품과 일본의 WTO제소 대응방안 토론회
- 미세플라스틱 규제 법제화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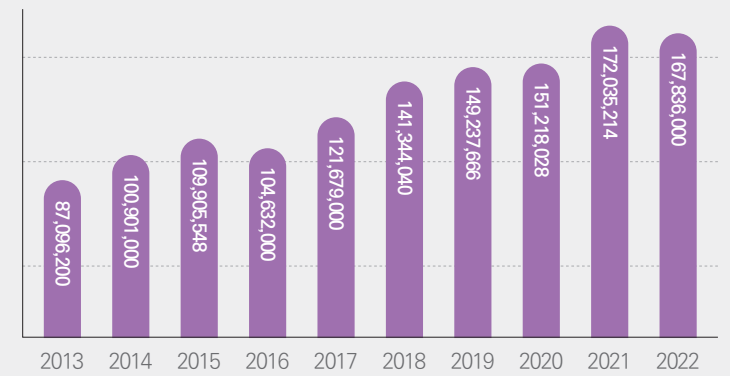
2015

- [포럼]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 [포럼] 기후변화와 젠더 대화모임

후원회원 수(명)



정기후원금 총액(원)



# 에코페미니즘 생태계 임팩트

## 생태계 임팩트 1. 환경건강

여성환경연대의 주요한 대중화 활동은 환경건강에 대한 논의와 실천입니다. 2004년 <여성의 눈으로보는 환경 건강 교재> 발간, 여성의 눈으로 본 환경건강 포털사이트 등을 개설하며 여성과 환경건강 담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2006년도부터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는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여성건강 사업으로 유방암 급증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서울지역 5개 학교에서 굿바이 아토피 캠페인을 3년간 수행하면서 친환경급식 및 먹거리지원, 알레르기 반응검사 등 검진,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토피 교육, 생활 속 유해물질 교육, 텃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환경건강 영역에서의 다양한 이슈 제기

환경건강 영역에서 소비자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대중의제를 발굴하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사증후군 캠페인과 대사증후군 캠페인을 위한 안내자 양성과정(2012) 운영, 소녀들의 G 다이어리(2012)와 여성건강다이어리 '몸과 마음의 기록'을 발간(2013)하였고, 대기오염과 관련해 환기생기 캠페인(2012)과 초미세먼지 건강피해 최소화하기 건강강좌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건강 문제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캠페인으로 이슈화 하였습니다. 유방암(여성)과 아토피(어린이)를 주축으로 전개해오던 환경건강 활동도 이 시기부터는 환경과 관련된 국민건강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호르몬(비스페놀 A), 대사증후군, 가슴기 살균제, 동물용 성장호르몬,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식품 등 국민건강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해 캠페인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다뤘습니다.

### 월경운동을 통한 시민참여 확장

2017년은 여성환경연대에게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면생리대 사용 확산에 집중했던 월경의 문제가 일회용생리대 VOCs검출실험을 계기로 전면화 되면서 여성환경연대는 대중적인 관심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여성환경연대의 월경운동은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월경운동은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을 밝히고 대안적인 월경용품 사용 등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월경현상을 터부시 해온 월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깨고, 건강한 월경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특히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보편지급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월경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활동입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월경운동에 대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지는 시민참여자가 2017년 2만 3천명에 달하는 전에 없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 여성환경연대의 환경건강 대응 활동

여성건강 (9개 활동)	월경건강 (42개 활동)	소비자건강 (32개 활동)	어린이건강 (5개 활동)
여성의 노동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환경건강 문제 대응	월경에 대한 건강한 인식 확산과 일회용생리대 유해성 문제 대응	여성들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제품의 안전 문제 대응	어린이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 문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방암 환경요인 조사와 예방 캠페인</li> <li>24시간 야간노동과 유방암 예방 캠페인</li> <li>파자마 캠페인(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규제 조례제정과 특별법 추진)</li> <li>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조사 진행</li> <li>화장품 성분정보 사이트, 앱 개발 '톡톡'</li> </ul>	<p><b>일회용 생리대 성분 유해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생리대 및 전성분표시제 캠페인</li> <li>생리대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li> <li>생리대 건강영향 평가 결과 발표 촉구</li> <li>월경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li> <li>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li> </ul> <p><b>월경인식 및 문화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월경대 프로젝트</li> <li>세계 월경의 날 맞이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기자회견</li> <li>월경 말하기 캠페인</li> </ul> <p><b>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운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월경 수다회</li> <li>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성명</li> <li>코로나 이후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타민 음료 벤젠 검출시험 진행</li> <li>비스페놀A를 아세요? 캠페인</li> <li>제로제로 대사증후군 캠페인</li> <li>가습기살균제 공정위 허위광고 제소 건 및 집단분쟁조정 기자회견</li> <li>환기생기 캠페인</li> <li>초미세먼지 건강피해 최소화하기</li> <li>외모?왜! 페스티벌 및 책 발간</li> <li>&lt;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제시&gt; 보고서 발간</li> <li>학생다움과 '여성다움'의 경계에서: 우리 그만화장집담회</li> <li>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설문조사</li> <li>휴트용품 및 운동공간 사용 실태와 안전성 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아토피어린이 지원사업</li> <li>굿바이 아토피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지역 5개학교</li> <li>- 아토피실태조사 및 예방교육</li> <li>- 친환경 급식지원</li> <li>- 굿바이 아토피 캠프</li> <li>- 생태텃밭교육</li> </ul> </li> </ul>

### 생태계 임팩트 2. 대안생활

서울 문래와 홍대 지역에서의 도시텃밭 교육, 자연을 꿈꾸는 학교텃밭 교재 발간, 도시농부장터 마르쉐@ 인큐베이팅 등 도시농업과 관련한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경험의 장을 넓힌 것 또한 새로운 실천의제 제시이자 운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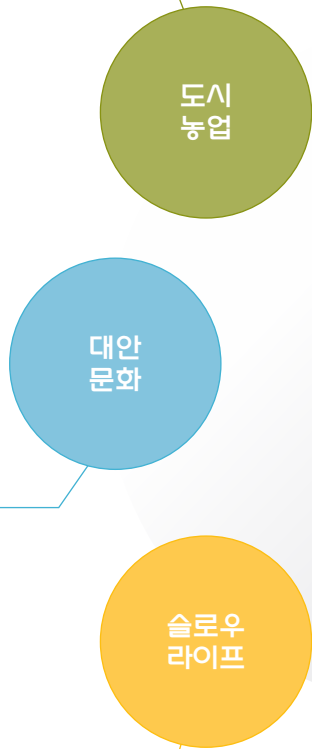
대안생활과 관련한 활동이 활발해진만큼, 대안생활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도 확장되었습니다. 캔들나이트와 관련한 일본 측 운동가 및 촛불켜는 가게와의 협업, 도시농업네트워크와 그린트러스트, 홍대가톨릭청년회관 텃밭, 이대 목동병원, 문래텃밭 등 도시농업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위한 위더컵 캠페인(With a Cup)을 통해 상당히 큰 폭의 대중화 경험을 갖기도 했습니다.

- 도시가 즐거워지는 도시樂농업! 마당 토론회(10)
- 강동초, 성북초, 정수초신나는 학교텃밭 가꾸기(11)
- 문래동 옥상농부학교(12)
- 홍대텃밭 시농제(13)
- 문래도시텃밭(13)
- 암환우와 함께하는 치유텃밭 @이대목동(14)
- 자연을 꿈꾸는 학교 텃밭(14)

- E형여자 캠페인(05)
- 그린크리스마스 캠페인(05)
- 동지제(05)
- 핸드메이드아카데미(07)
- 에코걸 페스티벌(10)
- 『소녀들의 G다이아리』 발간(12)
-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출간(16)

-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출간(18)
- 『괜찮지 않은 세상,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북콘서트@여성영화제(19)
-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보면 세상도 바뀌겠지』 출간(20)
- 스웨터 편지 프로젝트(20)

- 슬로우패션 워크숍(08)
- 의류소비행동 및 의식조사 토론회(08)
- 슬로시티기행 "달팽이들의 여행"(08)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시민을 만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환경건강관리사 1기(2005), 여성을 위한 환경건강교실(대림동)(2005), 행복한 발견(생태교육)(2005), 초등학교 명예교사 생태교육(2005), 직장인 생태교육(2005)등 다양한 시민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 펼쳐졌습니다.

대중의 일상에 가닿는 대안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캠페인 방식도 제안되었습니다. 전기를 켜지 않는 캔들나이트, 소비주의에 물든 크리스마스를 보다 이롭게 보내자는 취지의 그린크리스마스, 촛불켜는 동지제, E형 여자 캠페인(성공회대, 서울대, 이화여대)(2005)등을 전개하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코페미니즘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안생활 분야의 플라스틱 없는 삶 운동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생수시장 모니터링, 생수 소비 실태와 인식, 대안 마련에 대한 설문조사 등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재인 생수 이용을 줄이는 캠페인도 2021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운동을 위시해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도 전개되었습니다.

- MBC 환경콘서트 공동주최(07)
- 캔들나이트 하자축제(07)
- 촛불켜는 가게&릴레이메일링(08)
- 현대인을 위한 스물북(08)
- 에너지 사진 공모전(09)
- 캔들나이트(09)
- 에코로운 일주일(09)



- With A Cup 캠페인(08~)
- 미세플라스틱 Face to fish 서포터즈 '찾는바다' 발대식 및 바다쓰레기 워크숍(16)
- 화장품속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 검은컵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및 컵소재 단일화를 위한 연구조사) 보고서 발간(17)
- 찾아가는 플라스틱 없다방(18)
- 일회용 컵 사용 단속과 규제에 대한 카페 종사자 인터뷰 진행(18)
- 방방곡곡 플라스틱 없는 카페 지도 제작(18)
- 플라스틱 줍줍@서울숲(19)
- 일회용컵보증금제 요구 기자회견 @국회의사당(19)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20)
-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사용실태조사(20)

### 생태계 임팩트 3. 기후위기/생태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해법을 찾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 왔습니다. 석유와 속도 중심사회에 맞서 4대 강사업,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폭력적인 대형 국책 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현장에서 기후위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성환경연대는 새로운 대중참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차별화된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롭게 제시된 의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기후위기 피해사례 발굴, 기후우울 글쓰기,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등 젠더 관점의 기후정의 활동을 중심으로 타 단체와 차별화된 기후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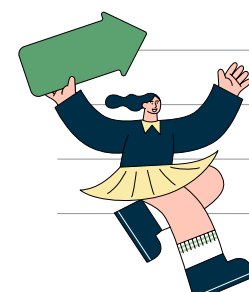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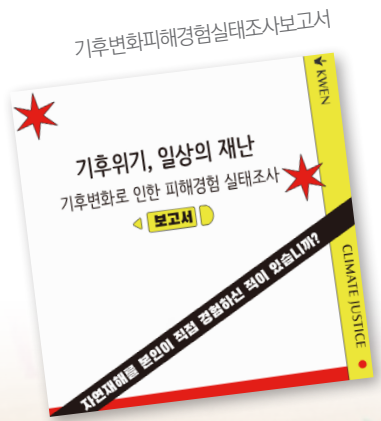


#### 2021

- 여성X기후위기 정책 간담회
- 릴레이 기후위기 선언 336 캠페인
- 지구, 쓰고 그리다 전시회

#### 2022

- 지구의날 맞이 지구에게 들려주는 낭독회
- 2030 기후우울 글쓰기 워크숍 시즌2
- 화나고 분한 당신 옆에, 반려편지 발송
- 기후위기 피해사례 실태조사 설문조사
- 기후위기 피해사례 인터뷰 진행
- 기후위기, 일상의 재난 보고서 발간
- 연구센터 '기후위기를 위한 페미니스트 정책 수립하기' 보고서 발간
- 나의 기후위기 대응 유형 알아보기 온라인 캠페인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notes.

